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말운론
-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1) 신앙촌과 전도관 사람들을 믿지 못하시는 영모님

영모님은 당신을 따른다는 교인들을 믿지 않으셨다. 특히 신앙촌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온 세상 마귀가 기장에 집결했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 속에 최고의 마귀세력이 있다. 이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82.3.15)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마귀 들어간 전도사들은 재기불능이다.”(82.7.4)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당신을 따른다는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영모님은 온 세상의 마귀가 기장에 집결했다고 처음으로 발표하셨다. 그러나 온 세상의 무량대수 마귀가 그때에 처음으로 영모님 계신 곳에 집결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모님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생각한 마귀들은 영모님을 꺾으려고 영모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역사했다. 소사신앙촌을 건설하셨을 때에는 마귀떼들이 소사신앙촌에 집결하여 영모님을 꺾으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영모님이 구속까지 되는 일이 생겼고 전국의 신문은 영모님과 신앙촌을 악평하

여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 세우게 됐던 일은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다. 영모님은 덕소신앙촌으로 옮기셨다. 전 세계의 마귀떼들은 덕소로 집결했다. 또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으로 옮기셨다. 역시 전 세계의 무량대수 마귀들은 기장에 집결을 했다. 영모님은 전 세계의 무량대수 마귀를 당신이 일부터 끌고다니셨던 것이다.

영모님은 이와같이 옮겨다니시는 과정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영모님을 따라 기장 신앙촌까지 간 사람들은 제일 열심쟁이 교인들이라고 알고들 있다. 그러나 영모님을 꺾기 위해 전세계에서 집결한 마귀떼들이 영모님을 대항하면서 그 졸개인 교인들은 가만히 놔두고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영모님을 꺾기 위해 집결한 무량대수 마귀들은 졸개인 교인들속으로 들어가 점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영모님은 자식들과 같은 그 많은 교인들을 지켜주실 수가 없으셨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영모님은 정말 실패자가 아닌가? 그러나 영모님의 사명은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 있다. 영모님은 소사 밀실에서 생명을 걸고 애쓰시는 구세주 예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마귀떼들을 영모님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하여 소사 덕소 기장 신앙촌으로 마귀떼들을 끌고 다니신 것이다. 영모님께서는 마귀들이 밀실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투쟁하시는 예정된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마귀를 속이기 위한 작전을 폈던 것이었다.

영모님은 그러한 과정에서 당신을 따르는 열심쟁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다 마

귀자식이 되는 것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영모님은 아시면서도 교인들을 다 마귀자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오직 구세주 한 분을 세우시기 위하여 무수한 교인들을 건축할 때만 필요한 '아시바'로 만든 것이다. 너무 냉엄하다고 생각할 수도

영모님은 마귀의 세력을 당신에게 향하게 하였다. 구세주를 출현시키려면 마귀의 화살을 피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숨기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신앙촌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이다.

있겠으나 하나님 임당에서는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구세주 한 분만 출현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셔야만 했다.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생도 감수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무량대수마귀가 가득 들어간 교인들을 영모님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장 신앙촌 단에 서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마귀새끼들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라고 말씀을 하셨다.

2) 무량대수마귀들에 에워싸여 생명을 위협받는 영모님

“온 세상 마귀가 다 기장에 집결했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 속에 최고의 마귀세력이 있다. 이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82.3.15말씀)”라고 하셨다. 결국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서 최

고의 마귀세력이 되어버린 신앙촌 교인들 속에 에워싸여 있다는 말이다. 성경에 마귀떼들이 성도(聖徒)의 진(陣)과 천년 주 한 분을 세우시기 위하여 무수한 교인들을 건축할 때만 필요한 '아시바'로 만든 것이다. 너무 냉엄하다고 생각할 수도

은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니 목시록 20장의 천년성은 첫번째 출현하신 영모님을 뜻하는데 그 영모님인 천년성을 마귀떼들이 포위하여 죽이려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천년성인 영모님을 무량대수마귀 들어간 신앙촌 교인들이 에워싸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신앙촌 교인들 속에 최고의 마귀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신앙촌 무리들이 영모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 마귀세력 때문에 매일 같이 오염된 피를 대야로 계속 토해내면서 사경을 헤매곤 하셨다.

영모님은 신앙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영모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 그래서 영모님은

10번 안내원들을 시켜서 영모님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정문에 굵은 쇠사슬로 문 손잡이를 칭칭 감고 그 쇠사슬에 큰 자물통을 잠궈놓게 하셨다. 영모님께 들어갈 일이 있는 사람들은 영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영모님이 허락을 한 사람들만 영모님이 10번 안내에게 전화해서 들어 보내라고 하시면 안내가 큰 자물통을 열고 그리고 굵은 쇠사슬을 풀고 들어보았다. 안으로 정문을 통과하여 영모님의 집무실인 3층까지 가려면 영모님이 전자캐페기로 일일이 열어주셔야 3층까지 올라가 영모님을 뵈울 수가 있었다.

이런 광경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면 영모님이 정신적인 병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봐도 이런 광경은 분명 정신질환이라고 백이면 백 명이 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은 분명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 틀림이 없었다. 마귀떼들에게 포위되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의 세력을 암시하시는 내용임이 분명하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말들은 안 하고 있었지만 분명 영모님이 정상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0년 4월경에 영모님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고 행방이 묘연하다가 약 1주일 만에 서울 7층양에 나타나셔서 기장에서 사모님과 자제들이 영모님을 기장신앙촌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니 영모님은 완강히 거부하시면서 “기장에 절대로 안 간다. 내

가 왜 또 기장에 가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기장신앙촌에 안 가겠다고 버티셨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영모님은 분명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기장신앙촌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끔찍하셨던 것이다.

영모님은 마귀떼들과 계속적인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다. 영모님 덕의 화장실에는 오염되어 토해낸 피로 항상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토해내어 사경을 헤메시는 것이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신앙촌 무리들이 영모님을 에워싸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압박을 가하니 영모님은 그것을 감당하시느라 밤새도록 그 마귀떼들과 싸우면서 오염된 피를 계속 대야로 토해내면서 사경을 헤매셨던 것이다.

그리고 영모님의 침실에는 피부가 타서 껍질로 벗겨진 것이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다. 마리를 말리는 '헤어드라이어'로 영모님의 정수리와 넙적다리를 지져서 그 피부가 타서 껍질이 벗겨져 떨어지면 다시 지지고 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 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고 영모님의 침실벽에는 '헤어드라이어'를 약 100개 정도는 뒹뚱한 것을 방벽에 몇겹으로 매달아 놓고는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단계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매달아놓은 '헤어드라이어'기를 다 작동을 시키면 온 방이 옹골로 속이 된다. 어쩌다가 한번 그코까지 불려 들어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영모님은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분명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88회

歌辭總論(가사총론)

十勝云日 심승운일일녇오되
人衆則時物盛 인중즉시물성이오
物勝則時地闊 물승즉시지벽이오
地闊則時苦盡甘來 지벽즉시고진감래
地運退去天運來 지운퇴거천운래로
天下靈氣皆入勝 천하영기개입승을
南海島中八靈山 남해도중팔명산이
海島之中 해도지중이니로세
萬頃滄波大海邊 만경창파대해변에
小產魚鹽富饒 소산어염부요하나
他國兵船往來 타국병선왕래하니
弓不在水分明 궁부재수분명하다
不剩山水野處 불리산수비아처를
仁富平沙桃源地 인부평사도원지로
東半島中牛服洞 동반도중우복동이
靑鶴神靈出入 청학신영출입하니
人王四維雜異山 인와사유지아산이
十勝 심승으로 暗示 암시일세
十勝之地出現 심승지지출현하면
死末生初當運 사말생초당운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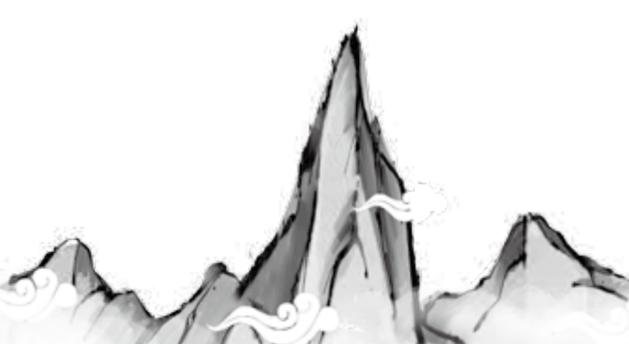
심승을 말하여 이르되 사람이 많은 즉 때는 물질이 풍성함이요 물질이 뛰어난 즉 때는 땅이 새롭게 열림이요 땅이 새롭게 열린 즉 때는 고생이 다하고 즐거움이 오는 법이라. 지운(地運)이 물러가고 천운(天運)이 돌아오면 천하의 신령한 기운이 다 심승에게 모여 들리라. 지운(地運)은

지귀(地鬼)의 운인즉 쇠병사장(衰病死癘)을 면할 수 없는 운이며 천운(天運)은 천신(天神)의 운인즉 쇠병사장이 물러가는 운이다.

남해도(해우반도의 남쪽=남조산) 중의 심승 정도령이 있다는 팔명산(八靈山)은 바다 가운데의 섬이 아니라, 푸른 파도 일렁이는 큰 해변에는 물고기와 소금의 생산은 작지만 풍요하게 사는데 다른 나라의 군함이 왕래하니 심승이 물(바다)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라. 산도 물도 이로움이 없으니 비산(비야(非山非野) 즉 산도 들도 아닌 곳을 찾아보라. 인천 부평 소사 사이에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복숭아밭이 있던 곳이요. 동쪽 반도의 조선의 우복동(牛服洞=牛자의 배=十)에 청학신령(선)이 출입하니 인왕(人王=人尊)으로 기이(奇異)한 지혜를 가지신 심승을 암시할 일세. 심승지 정도령이 드러나면 죽음의 세상은 끝나고 영생의 세상이 처음 열리는 운이 당도하느니라.

入山修道念佛 입산수도염불님네
彌勒世尊苦待 미륵세존고대치만
釋迦之運去不來 석가지운거불래로
한번가고아니오니
三千之運釋迦預言 삼천지운석가예언
當未下生彌勒佛 당말하생미륵불을
萬壘山中仙人 만첩산중선인들아
山中滋味閒寂 산중지미한적하니

석가지운 삼천 년이 끝나고 미륵불이 출현했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알지를 못하는구나



魍魎魍魎虎狼盜賊 리매망랑호랑도적
是亦弓不在山 시역궁부재산일세
斗牛在野勝地處 두우재야승지처면
彌勒佛 미륵불이出現 출현건만
儒佛仙 유불선이 腐敗부패하야
아는君子군자누구누구
削髮爲僧侍主 삭발위승시주님네
世音菩薩 세음보살게누군고
侍主菩薩 세음보살게누고
彌勒佛 미륵불을제알손가

입산수도 염불하는 스님네들이여! 미륵불을 고대하지만 석가의 운수는 한 번 가고 아니 오느니라. 삼천 년의 운수를 말은 석가가 예언하기를 말법시대(말세)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을 말하였느니라. 참첩산중의 선인(仙人)들이 산중(山中)에 한적(閑寂)한 재미는 있으나 산

도깨비, 하깨비, 호랑이, 이리, 도적같은 자들이 날뛰니 이 또한 심승이 산에 있지 않음일세. 생명을 주관하는 복두칠성의 기운을 가지고 소가 들에서 밭을 갈듯이 마음 밭을 갈고 인생을 추수하기 위해 마귀를 이기신 미륵불이 출현하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시주한다는 스님네들이여! 관세음보살이 그 누구인가? 우주의 주인 공을 마음속에 모신 관세음보살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찌 미륵불을 알겠는가?

阿彌陀佛佛道人 아미타불불도인들
八萬經卷工夫 팔만경권공부하야
極樂 극락간디말은하나
가난길이希微희미하고
西學入道天堂 서학입도천당인들
天堂 천당말은참조으나

학(西學)에 입도(入道)한 천당인(天堂人)들 즉 기독교를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 천당(天堂) 받은 참 좋으나 구만장천(九萬長天) 멀고 머니 일평생엔 다 못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조를 읊는 유교의 선비들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바른 인륜(人倫)이요 도덕(道德)이지만 거만방자(倨慢放恣)하며 시기질투(淸忌嫉妬)하고 음탕하고 샛된 짓을 하며 정욕에 빠져있을 뿐이더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불도인(佛道人)들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서 극락 간다고 말하는 하지만 가는 길이 희미하고 서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승리의심
승리채널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422-826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